

2022년

제3차 이사회 결과

❖ 일시: 2022. 09. 29. (목) 10:00~10:50

❖ 장소: Zoom 화상회의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상 회의 진행



대한장애인골프협회

Korean Differently Able People Golf Association

I. 이사회 결과

□ 개요

- 일시: 2022. 09. 29. (목) 10:00~10:50
- 장소: ZOOM 화상 회의
- 참석: 재적이사 19명 중 11명 참석
- * 【배석】 3명(대한장애인골프협회 사무국장, 과장, 주임)

□ 보고사항

- 전차 이사회 초록 보고

□ 심의·의결 사항

- ① 파크골프 규정 개정(안)
- ② 제42회 전국체전 준비 TF팀 구성(안)
- ③ 교육위원회 구성(안)
- ④ 교육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 ⑤ 심판 자격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

※ 결과: 참석자 전원 찬성하여 심의 안건 원안 가결

Ⅱ. 회의록

-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사무국장 박민균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사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한장애인골프협회 2022년도 제3차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

- 사무국장: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바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보고〉

〈성원보고〉

- 사무국장: 재적 이사 18명중 11명 참석으로 정관 제25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3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이어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장: 화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번 협회장배 대회에 참가해주셔서 뵈었지만, 참가 못하신 분들도 이렇게 뵈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협회장배가 마지막날 태풍으로 인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네요.

이번 이사회에서는 파크골프 규정 개정, 교육위원회 신설 안전 등이 있어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체전이 20일도 안 남았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이사님 들도 내려오셔서 선수들을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보고사항 제1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 1호 전차 이사회 초록 보고가 있겠습니다.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사전에 공유해드린 안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사회 초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차 이사회는 3월22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틀 동안 재적이사 18분 전원이 참여한 서면결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사항으로 2022년 제2차 이사회에 관한 초록 보고를 하였으며, 심의 안건으로 2022년 제2차 회사 서면 결의, 사무국 운영 규정 개정안, 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심판위의 내부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재적이사 18분 전원이 원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초록에 잘못 기록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진: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네 다음은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 안건 제1호를 상정하시겠습니다.

- 의장: 안건 제1호인 파크골프 규정 개정안 심의 및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안전자료 6쪽입니다. 파크골프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운영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을 수정하고 신설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규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고 오타나 문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파크골프 규정 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8페이지부터 17쪽에 첨부된 골프 규정 신구조문 대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호 안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사무국장이 심의 안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세요. 한 번쯤
- 선인태 이사: 이미 지난 자료 보내주신 거 잘 봤습니다.
- 사무국장: 그래도 지금 한번 보시고 이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기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승천 이사님.
- 백승천 이사: 예 반갑습니다. 경기위원장 백승천입니다. 규정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규정을 변경을 했는데 우선 이제 티박스 크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가로 2.5m, 세로 2.5m 규격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바뀌는 거는 가로가 170cm고 세로가 140cm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됐고, 안전망하고 그 사이에 오비선을 치는데 그것도 30cm 이상을 두고 설치하기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어드레스 후 15초 이내 플레이 관련 내용은 녹장플레이에 관한 건데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는 1차가 경고 2차가 페널티에 3차가

실격으로 논의 했었는데 실격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제 투터치 문제가 있는데 투터치가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서 어떤 분은 투터치를 한 타 추가 하자고 하는 분도 있고 그건 어떤 분은 이제 패널티를 적용을 해야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물체를 맞고 나가건 들어오건 무조건 OB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안을 올린 거는 움직이는 물체가 됐든 고정 물체든 맞고 들어 오면 무조건 인이다. 최종 위치로 좀 바꿔봤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쪽 15조 3항을 보면 경기 위원에게 경기중에 공이 맞았을 경우를 신설을 했는데 그것도 경기의 일부분으로 인정을 하기로 했고 마크 관계는 부정한 방법으로 마크를 하면은 패널티를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이걸 아마 지금 우리 규정상 선수들의 행동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마크는 거의 다 심판 위원들께서 해주시니까 이거는 그렇고 그리고 저희 옛날 규정에 티박스에 40cm 정도 떨어져서 라인을 긋고 그 선 내에서 티샷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은 현실상 사장된 그런 룰이고 전혀 사용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그 안은 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떨겠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은 좀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게 어떨겠느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인아웃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한번 하셨었는데 간담회 때는 인아웃 관계가 공이 라인에 조금만 걸쳐도 인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또 지금 50%로 그러니까 선의 50%만 물려도 안쪽으로 있으면 인이고 왜 바깥쪽으로 나가면 아웃이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여러 이사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규정상에서 크게 변하는 건 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는 이것도 있네요. 활체어 같은 경우인데 한발이 됐든 양발이든 무조건 활체어 선수는 어떤 발도 땅에 닿으면 안 된다 이규정도 확실하게 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이번에 조금 바뀌는 거는 너무 획기적으로 많은 것을 바꾼다기 보다는 지금 현장에서 이걸 정말 너무 맞지않다 하는 것만 지금 이제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포 부회장: 다들 의견이 없으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포입니다.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달라고 경기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회 자료대로 개정된 안을 그대로 적용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게 지금 이제 개정안이 이번에 발표되면은 일선에서 모든 각 시도에서 대회할 때 여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규정이 이게 안 내려가지고 지금 대회를 하는 거 몇 군데 가보면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OB한 자리에서 두 클럽 이내에 공을 갖다 놓는다 훌쩍에서 먼 쪽으로 그런 것이 이제 규정상 지금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앞으로는 각 시도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다음 이사회에서 우리가 한 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 백승천 이사: 인아웃 관계 이 관계만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어쨌든 이번부터 벌어지는 모든 경기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50%를 적용하는 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 김정포 부회장: 김정포입니다. 말씀해도 됩니까
- 백승천 이사: 네
- 김정포 부회장: 인아웃 관계 이미 정리된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면 또 의견이 분분하실 수 있으니까 종전 안대로 그냥 OB 라인 안에 걸치면 세이프 밖에 나가면 아웃을 하는 게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한 대회에서 세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큰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안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 백승천 이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없으신가요? 저도 그 안에 찬성합니다.
- 선인태 이사: 저도 기존 안에 찬성합니다.
- 의장: 그럼 나머지 이사진들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대한장애인 골프협회 파크 골프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결합니다.
(이사진: 의견 없음)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네 다음은 식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 안건 제2호를 상정하시겠습니다.

- 의장: 심의 안건 제2호인 제42회 전국체전 준비 TF팀 구성안 심의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안건 자료 화면에 띄어봤고요 42회 전국체전 준비 TF팀 구성안에 대해서 제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국체전 파크골프 종목에는 세부 종목으로 4인조 혼성 단체전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전국체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체전TF팀 구성안은 화면에 올려봤으니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호 안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사무국장이 심의 안건 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비교란도 돼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선인태 이사: 전북의 선인태입니다. 의견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TF팀 구성에 경기위원장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 회의 때도 나온 얘기인데 이 TF팀이 체전 전까지입니까 체전 기간에도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 백승천 이사: 체전 직전 까지예요.

- 선인태 이사: 예예 알겠습니다.

- 사무국장: 밑에 빨간색으로 써놨죠. 경기 개시 전날까지 운영하고 해체합니다.

- 선인태 이사: 네네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 의장: 그럼 나머지 이사진들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제42회 전국 체전 준비 TF팀 구성 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이사진: 의견 없음)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네 다음은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 안건 3호를 상정하시겠습니다.

- 의장: 심의 안건 제3호인 교육위원회 구성 안 심의 및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네 안건 자료 22쪽입니다. 대한장애인골프협회 교육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급 3급 심판강습회 같은 인재 육성 과정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구성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에 투입되는 심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안건을 부여합니다.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은 안건 자료 24쪽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3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사무국장이 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가 심판 교육하는 과정도 그렇고 현재 심판위원장이 혼자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심판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의나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이 미흡하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강화하기 위해서 심판 교육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진 의견 없음) 그럼 나머지 이사진들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대한장애인골프협회 교육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네 다음 회순에 따라서 회장님께서 심의 안건 제4호를 상정하시겠습니다.
- 의장: 심의 안건 제4호인 교육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안건 자료 26쪽입니다. 방금 의결한 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육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규정을 안건으로 부의 합니다. 규정 관련 내용은 안건 자료 27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사무국장이 심의 안건을 설명하였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포 부회장: 부산 협회 김정포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심판 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니까?
- 사무국장: 교육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문인력, 현재 협회에서

직접 양성하는 전문인력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지도자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 자격 과정 운영에 있어 역량이 있고 강의 잘하시는 교수분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심판강습회 할 때 심판위원회에서도 이제 파크골프 규정 관련 강의나 문제출제와 같은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관여를 하는데 심판 자격증 시험 볼 때 교육위원회 교수님들이 오셔서 파크골프 외 과목 부분에 대한 문제출제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담당을 해주실 그런 분들이세요.

- 선인태 이사: 덧붙여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위원분들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또 교육위원이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파크골프 운영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스펙을 보니까 역량은 충분하신데 의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교육 일정에 그분들이 충분히 응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 이분들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선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 좀 드립니다.
- 사무국장: 일단은 교육위원회 운영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회장님께서 1차적으로 의견주신 인력으로 구성을 했고, 당연히 이름만 올려놓은 인력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과 시간이 되시는 분들 현직 교수님들로 섭외를 했습니다.
- 선인태 부회장: 네 설명 감사합니다.
- 의장: 임원 서류와 똑같이 다 받아서 위원별로 심사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은 올해도 2급 지도사 교육 강의를 실제 하고 있는 분입니다. 동영상 강의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일반 협회에서도 강의하시고 활동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심판위원장은 실기 부분에 대해 중점하고 심판 모집 배치 관리만 하고 교육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백승천 이사: 저 백승천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위원회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판이나 그런 거 행사하는 데 필요해서 꼭 하시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앞으로 저희 장애인 골프 쪽 이쪽도 어떤 에티켓 교육이나 거기에 필요한 기본 예의들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그런 에티켓 교육이나 우리 어떤 예의 규정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원뿐만 아니라 선수들한테까지도 어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했으면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감사합니다. 저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원을 하나 또 이제 교육위원회에 추가하면은 안전관리 위원도 한명을 같이 넣으려고 그래요. 골프장에 보면은 대회전에 안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여튼 설치하는 것도 신설하는 골프장 문제도 그렇고 현재 있는 데에서 대회를 중요한 대회를 할 때는 안전 관리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안전관리 요원도 한 명 나중에 이제 추가로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진 분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사진: 의견없음) 나머지 이사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대한장애인골프협회 교육위원회 구성 안에 대해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네 다음은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 안건 제5호를 상정하시겠습니다.

○ 의장: 심의 안건 제5호인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심판자격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의 심의 의결권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회장: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안건 자료 32쪽입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구성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이와 관련된 부분을 심판 자격 관리 규정 개정안에다가 추가로 교육위원회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규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원만한 심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함이고, 주요 내용은 현재 규정에 교육위원회 역할을 명시하기 위해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규정 개정안 관련 내용은 안건 자료 33쪽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사무국장이 심의 안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진: 의견없음) 그럼 나머지 이사진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대한장애인골프협회 심판 자격관리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제 준비된 안건은 다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천 이사: 백승천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게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협회장배 대회)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PGW 여자 부분 이게 이제 성별을 꼭 나누는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경기하는 시간이 정말 길더라고요. 남자 선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대략 시간을 재봐도 남자보다 배 이상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어떤 루즈한 그런 게임이 진행될 것 같고 해서 이번 체전에도 이번 체전에 한 번 PGW 여성 부분에 관해서는 두 명 1개조 정도로 조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은 이게 어떤지 맞는 건지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선인태 이사: 전라북도 선인태입니다. 예 팀 구성에 대해서는 체전 TF팀에서 충분히 논의해도 되는 문제이고 또 경기 시간이 이렇게 늦어진다면 2인 1개조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인으로 줄여서 효과를 그냥 좀 많이 보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또 다른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보면 18홀로 끝나면 좋은데 PGI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이면 18홀로 끝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계속 늦어지고 전체적인 경기에 소수로 인해서 다른 많은 분들이 전체의 90% 이상이 피해를 본다면 우리 중앙의 이사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심의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2인 1조 구성은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포 부회장: 예 부산협회 김정포입니다. 이번에 경남에서 개최되는 진주장애인체육회장배에 조편성표를 보면은 다행히 PGW가 2인 1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밖에 되지 않지만 그걸 한번 보고 참고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합이니깐 한 2~3일 기다리셨다가 괜찮은 방법 같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획하시는 부분도 괜찮다고 봅니다.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백승천 이사: 알겠습니다.
- 김정포 부회장: 제가 의견을 한 가지 내겠습니다. 이사회 내용하고는 합당한 의견인지는 몰라도 올해 개최되는 전국의 파크골프 대회를 보면 우리 중앙에서 대회 요강이라든지, 참가신청서를 다 아마 공지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대한장애인골프협회는 후원이나 주체나 주관 같은 데 아무 곳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도협회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우리 중앙협회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 '전국'자가 붙은 안 그러면 8개 시도 이상의 대회 안 그러면 또 '전국대회'가 붙은 파크골프에는 반드시 우리 중앙의 명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강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 김정포 부회장: 강제를 해야 되는 것이 다 중앙이 있어야 시도지부도 있고 시도지부가 있어야 시도지회도 있는데 중앙을 제외하고 자꾸 자기네들끼리만 명칭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시도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전국자가 붙은 것 아니면 8개 시도 이상이 되면은 중앙협회의 명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강제해 주십시오. 건의드립니다.
- 백승천 이사: 백승천입니다.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대회 요강이 올라오면 각 시도에서 주최 측에서 각 시도로 보내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중앙에다 올려서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앙에 올리는 것이 특별한 인연

이런 거 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모든 대회를 중앙에 요청하면 중앙에서 공지를 해주는 겁니까?

○ 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협회에서 시도지부로 직접 이메일로 공지함과 더불어 홈페이지에 올리는 대회는 중앙 예산이 지원되는 그 대회들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홈페이지에 올리는 대회들은, 시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중앙에서 다 알진 못하지만, 시도협회에서 이러한 대회를 하니까 전국 규모 대회를 하든 아니면 그쪽 전라도권 대회 경상도권 대회 재호영 대회 이런 식으로 대회를 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는 그냥 중앙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줍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 백승천 이사: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선인태 이사: 전라북도 선인태입니다. 이 안건이 예전에 이미 다 나온 얘기에요. 중앙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중앙에서 일부라도 예산이 나간 대회 아니면은 전국적으로 예산이 안 나가더라도 이미 공신력이 있는 대회 제주도지사배가 15회차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진안 홍삼배 당진배 같은 이런 대회는 그때 중앙협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어도 이제 신생대회나 전국 시군이 254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254개 시군 중에 물론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시군에서 열리는 대회를 '전국'자 붙여서 중앙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예전에 대의원 총회에서도 이미 나온 안건입니다.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도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각종 대회가 우리 중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정리해서 예전에 그런 안건이 올라와 갖고 결정된 부분이라 다시 한 번 게재해가지고 인식할 수 있게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백승천 이사: 백승천입니다. 연속성을 가지는 전국대회는 올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좋습니다 하여튼 아까 선인태 이사님 얘기 말씀 과거에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간 대회는 반드시 넣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회는 넣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아까 김정포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지금도 지방대회는 뭐야 연속성이 있고 계속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한 지역 당진대회라든가 진안대회라든가 여러 대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령 대회가 있고 지금 진주대회가 첫 번째입니다. 진주대회가 이번에 올라온 중에 첫 번째 대회이기 때문에 진주시장배는 저희가 올라온 서류를 검토해 봐도 검토 사항에 이상은 없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대한장애인골프협회 명칭은 반드시 다음 대회부터는 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창록 이사: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전국대회 공지하는 부분은 아까 선인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장애인골프 협회의 관여가 직접적인 것들은 공식적인 것들은 올리고 기타로 별도의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서 그냥 홍보란으로 하나 해서 이게 자유롭게 올리는 란이 하나 있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 선인태 이사: 공지가 아니라 게시판에 이런 대회가 있다고 게시판에 각자 올렸습니다. 시군에서 게시판이라는 건 되게 자유로운 공간인데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좀 정신없으니까 홈페이지에서 한 섹션 하나 만들어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대회 같은 거만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회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시도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사무국장하고 저 사무국에서 의논하는 거는 반드시 당진시장배 다 하면은 앞에 충청남도 협회라는 게 첫 번째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게 들어가지 않고 충남 당진 지체 장애인협회 이게 먼저 들어가면 여지껏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장배가 여태까지 올라오지 않았습시다. 올해 처음 당진 시장배가 중앙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충남 협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한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경상남도 진주시장배 하면 경상남도 협회가 주관이 되는 거 이렇게 행사가 된다는 거 그런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회장: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 이사진 전원: 기타 의견 없습니다.

○ 회장: 그럼 이것으로 2021년도 대한장애인 골프 협회 제3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아침 일찍이 하여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이사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사봉 3타〉